

내 인생의 스승, '서점 사람들' (4)

창비 등록취소와 광주 종합서점 조수웅 사장



글_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원래 나는 1986년부터 새로운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편집자로 출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기획을 병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회사가 잘 굴러가자 나는 1985년 12월 초에 김윤수 사장께 내년부터는 정시 퇴근을 하겠다고 말씀드려 일단 허락을 받았다. 정시 퇴근이라니? 남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문을 닫기 전까지 서점에서 살았다.

당시만 해도 대형서점 진열대는 출판영업의 최고 승부처였다. 지금처럼 신간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 출판사 영업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스무 곳 넘게 책이 진열되기도 했고 그런 책은 대부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G출판사 L부장은 영업자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다. 그는 사진 찍는 것을 무척 좋아해 지방 출장을 다닐 때도 꼭 고급카메라를 메고 다닐 정도였다. 그는 종로서적 직원들이 야유회를 갈 때면 늘 따라갔다. L부장은 야유회에서 찍은 사진을 크게 뽑아 나눠줌으로써 종로서적 직원들의 환심을 샀다. 그러니 그와 서점 직원들 사이에는 돈독한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었다.

G출판사가 한 의사의 심리에세이를 책으로 펴내자 서점에는 '길목' 마다 책이 진열됐다. 그렇게 '깔린' 책은 단지 놓여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강력한 추천이 뒤따랐다. 더구나 대형서점 여직원들은 단골고객이 따로 있을 정도였으니 직원들의 추천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의사가 G출판사에서만 책을 펴내기도 80년대 내내 영향력 있는 베스트셀러 저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한 영업자의 사진 취미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다.

당시 서점 진열의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컸다. 지금이야 책에 대한 정보가 넘치고 다양한 책이 나오니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됐지만 그때만 해도 서점

진열을 목숨처럼 여길 때였다. 베스트셀러 집계도 지금은 영역별로 다양하게 하지만 그때는 소설과 비소설 두 분야만 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등재 여부는 책의 운명을 크게 좌우됐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한 출판사에서 베스트셀러 소설을 일시 품절시켰다. 원칙대로라면 그 밑의 책을 위로 올려야 하는데 한 대형서점 담당자가 해고된 몇 사람이 설립한 어느 신생출판사의 신간 소설을 품절된 책의 자리에 '장난삼아' 진열했다. 한데 정말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우연'이 일어났으며 결국 30만 부가 넘게 팔렸다.

당시 교보문고 교양코너에는 입과 장의 성을 가진 두 직원이 있었다. 두 직원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개인적으로 단골손님도 '거느리고' 있었다. 교보문고에는 공식적으로 판금서적이 입고될 수 없었지만 이 두 사람은 단골손님에게 회사 몰래 판금서적을 구해주기도 했는데 나도 가끔 그런 일을 처리해주었다.

1985년, 창비 출판사 등록 취소 날벼락

그런데 무크지 <창작과비평>을 펴냈다는 이유로 1985년 12월 9일 출판사등록 취소라는 날벼락을 맞은 것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해보려던 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무크지를 내면서 1985년 부정기간행물 1호임을 분명히 밝혔지만 동일한 제호를 사용하고, 표지와 차례에 '계간 통산 57호'임을 명시, 강조했으며, 머리말에서 속간임을 상세히 해설했다는 이유 등을 들이대며 1980년에 등록 취소된 <창작과비평>을 허가받지 않고 복간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호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등록취소의 사유였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당장 대형서점의 진열이 달라졌

다. 대학생들의 '필독서' 처럼 여겨졌던 창비 신서는 시리즈 전부가 교보문고 교양 코너와 인문 코너에 이중 진열되어 있는데 교양 코너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나마 인문 코너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그것도 구석 벽의 맨 아래 서가에 일부만이 진열됐다. 판금서적의 잣대를 쥐고 있던 서술 퍼런 문화공보부가 인근에 있어 문화공보부의 '은근한'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교보문고의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한길사, 문학과지성사, 까치, 흥성사 등의 사상신서들은 여전히 이중 진열돼 있는데 유독 창비의 책만 그런 대접을 받으니 역장이 무너졌다. 그래서 나는 인문담당 과장에게 그 자리라도 좋으니 한 질만이라도 완전하게 꽂아달라고 읍소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 매장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왜 출판사가 난리냐는 말이었다.

나도 그 말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책은 우리 출판사 마음대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거래정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교보문고로 보냈다. 사장님은 내게 자신 있다고 물어보시고는 자신 있다는 내 대답을 들으시더니 즉시 도장을 찍어주셨다. 나는 거래정리 사유에 '부실거래처'라고만 간단히 적었다.

익히 알다시피 1980년대는 인문사회과학의 시대였다. 더구나 1985년에는 유난히 인문서가 강세였다. 1985년 교보문고 종합베스트셀러 20위 안에 김용옥 교수의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강만길 교수의 《한국근대사》(16위), 《한국현대사》(18위), C. W. 세람의 《낭만적인 고고학 산책》(20위) 등 인문서가 네 권이나 올랐을 정도이니 인문서가 얼마나 좋은 반응을 얻었는지 미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교보문고에만 출고 정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도매상도 교보문고에 절대 책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했다. 그때가 3월 신학기여서 교보는 강 교수의 두 책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만 했다. 당시 교보 판인수 과장이 인간관계는 인간관계고 이 문제는 도저히 힘들겠다는 나의 대답을 듣고 바로 한국출판협동조합에 전화를 걸어 두 책을 있는 대로 모두 주문해 가져갔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사태가 담당자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듯하자 교보문

고에서는 담당 상무가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담당 상무는 판인수 과장을 대동하고 회사로 와서 1시간 30분 동안 김 사장님을 만나고 갔다. 나는 직원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사장님은 자신은 영업을 잘 모르니 거래문제는 담당자하고 상의하라는 말씀만 하셨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나의 '사부' 였던 판인수 과장에게 술 한 잔 하자고 전화를 했다.

그날 판 과장과 나는 종로2가의 한 허름한 술집에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셨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동안 거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저 세상사는 이야기만 했다. 헤어지면서 나는 내 마음 이해하느냐고 판 과장에 물었고 판 과장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 무언의 대답을 듣고 내일부터 책을 주문하라고 말했다. 내



가 만약 더 버텼다면 교보문고 전 직원과 감정싸움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싸움은 확실하게 벌이되 해결은 재빨리 하곤 했다. 나는 운동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일 이후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교보문고의 진열이 많이 나아졌다.

어려운 고비에 힘이 되어준 광주 종합서점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다른 일이었다. 문화공보부가 창비의 '물질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창비이동문고의 '사상성'을 들고 나온 것이었다. 문공부의 영향력 밑에 있는 간행물윤리위원회(당시 위원장은 이영희)에서 창비이동문고에도 민중론이 침투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합동통신 문학·출판 담당기자는 무시(나중에 확인한 사실이다)했지만, 정부종합청사를 출입하는 다른 기자가 그 기사를 썼다. 그 기사를 KBS, MBC가 받아 저녁 9시 뉴스에 방영한 것이었다.(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4대 일간지는 기사

를 신지 않았다.) 이오덕 선생의 동시집에서 아이들이 자치기 놀이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의 ‘쳐라’ ‘까라’ 라는 단어가 폭력혁명을 조장했다는 어이없는 내용이였다.

방송의 파장은 대단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창비아동문고의 ‘인기’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고 말았다. 권정생의 《몽실 언니》는 1984년 문공부 추천도서로 선정됐다. 그러나 문공부는 1985년에 그 책을 다시 판금도서 목록에 올렸다. 충남지방에서는 학생에게 이 책을 생일선물로 준 교사들이 줄줄이 징계위에 회부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게다가 경찰들은 서점에 창비 책을 반쯤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래서 거래정리를 한 곳은 구미의 서점 한 곳에 불과했지만 반쯤이 계속 밀려들었다.

잘 나가던 책들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신간도 나오지 않으니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절판됐던 소설의 판형을 46판에서 국판으로 키우고 표지만 바꿔 다시 펴내 신간이라며 배본했다. 서점들은 그런 책이나마 어떻게든 팔아주려고 신경을 써 주었다. 장부에 달랑 그 책들의 매출만이 적혀있는 서점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런데도 많은 서점들이 힘껏 도와주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광주의 도매점인 종합서점이었다. 나는 그 서점에 출장가면 장부도 꺼내지 못한 채 매장에서 서성거리며 책을 보는 체했다. 그러면 조수용 사장은 출판사의 일을 다 봐준 뒤 나를 불러 은행어음을 한 장 끊어 던져 주곤 했다. 어음을 받은 뒤 “장부에 사인이라도 해드려야지요”라고 말하면 조 사장은 “됐어! 네가 내 돈 받고 떼어 먹겠어! 보기 싫으니 빨리 꺼져!”라고 통명스럽게 말하곤 했지만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살가울 수가 없었다.

그때 창작과비평사의 등록취소 조치에 항의하는 범지식인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져 2,853명이 서명한 서명록을 황순원 선생 등이 문공부에 전달하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많은 외국 지식인들이 등록취소 사태에 항의를 하기도 했다.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이 정권이 끝나거나 민주화가 되기 전까지는 명예회복이 어려울 터이니, 구차하게 살아남을 게 아니라 자폭해버리자는 강경 입장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김윤수 사장은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출판사 등록은 어떻게든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김 사장은 나중에 지리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교섭의 과정에서 신경성 가려움증까지 얻었다고 회고했다. 등록취소 조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내렸는데 김 사장은 문공부 매체국장과 6개월 넘게 일주일마다 한 번꼴로 만나 신뢰를 쌓아가며 교섭을 벌였다. 결국 8개월 만에 문공부는 ‘창작사’라는 이름의 새 등록을 받아주는 타협책을 내놓았고 창비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8개월 동안 광주 조 사장은 단 한 번도 지불을 거르지 않았는데 나중에 장부는 마이너스로 금액이 내려가 있었다. 조 사장이 창비가 좋아서 그랬는지 광주 학살을 자행한 5공 정권이 싫어서 그랬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같은 지원이 있었기에 창비는 그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거래처 지불이나 직원 월급을 미루지 않을 수 있었다.

나중에 《소설 동의보감》이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자 광주지방 다른 총판과 도매상들이 온갖 통로로 그 책을 달라고 했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직 종합서적에만 공급해 적지 않은 욕을 먹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조 사장이 보여준 애정에 비하면 그 정도는 초라한 것이었다. 덕분에 나는 강성으로 영업을 하는 ‘문제아’로 알려지는 등 좋지 않은 평판이 나돌기도 했다.

창작사로 등록이 나오자 그래도 숨통이 조금 트였다. 등록취소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한 지엽사는 종이 공급을 해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고를 했고 한 인쇄소는 그들이 보관하던 지형을 모두 신고 와서 되돌려주고 돌아가기도 했다. 반면 경일제책사의 이약실 사장은 제작비를 주지 않아도 되니 일이나 달라고 해서 감동을 받았고 그 때문에라도 제작비를 미룰 수는 없었다. 하지만 등록이 다시 나오고 나니 제작거래처에도 몇 달만 봐 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이후 신간이 계속 나왔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년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산 적이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영업성과는 예전 같지 않았다. 영업 총책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88년 가을에 나는 결국 만세를 부르고 말았다.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말았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계속 일하겠냐고 물었다. 나는 “1983년 현기영의 《변방에 우짖는 새》 이후 5년 동안 장편소설이 한 권도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계절마다 장편소설 한 권씩만 내주면 죽어라고 일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1989년 3월에 현직 교도관이 쓴 최초의 장편소설 《하얀 집의 왕》(홍인표)이 출간되었다. **☞**

(다음 호에 계속)